

2018년 2학기  
린튼리더십 베트남팀 결과 보고서



일시 : 2019. 01. 19(토) ~ 28(월)

참여 학생 : 김바울 외 26명

인솔자 : 양인철 전임교목 , 최정진 교수, 한철 교수

# [목차]

1. 프로그램 개요 .....	3
2. 준비 내용 .....	8
3. 린튼리더십 봉사활동 .....	19
4. 우리가 경험한 베트남 역사와 문화 .....	28
5. 조별 발표 .....	35
6. 개인별 느낀 점 .....	44
7. 총평 .....	72
8. 부록 .....	74

# 1. 프로그램 개요

# 1. 프로그램 개요

- 일시 : 2019년 1월 19일(토) ~ 28일(월) 8박 10일
- 장소 : 베트남 호치민 및 빈롱성 푸득 초등학교
- 이동수단 : 인천-호치민 항공편, 호치민-빈롱 버스
- 목적

- 가. 베트남 빈롱성 푸득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 음악, 미술, 체육활동 등을 통해 현지 어린이들과의 사귀며,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교육실습을 한다.
- 나. 빈롱성 지역 내 가난한 현지인을 위해 집짓기를 위한 근로봉사를 수행한다.
- 다.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베트남 현지의 문화, 역사, 언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능력을 향상시키며, 현지인에게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 라. 호치민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 6명을 통역으로 초청하여 양 대학생들의 교류와 이해를 촉진한다.

□ 인솔자: 한철 교수(법학과), 최정진 교수(정치외교학과), 양인철 전임교목

## □ 일정

일시	시간	내 용	비 고
1/19(토)	18:00	인천 제1여객터미널 집결	
	21:20	인천-호치민 5시간 이동 - 제주항공 (7C4703)	시차 2시간
	01:00	호치민 도착, 김덕규 선교사님과의 만남 숙박 (Universe Central Hotel Saigon)	새벽 1시 도착
1/20(일)	08:00	아침 식사 (호텔식사)	
	11:30	주일예배 (11:30-12:00)	
	12:00	점심 식사 (Pho 2000 쌀국수 식당)	
	14:00	빈롱시 이동 (3시간 소요. 중간에 저녁식사)	
	18:00	숙소 도착 및 개인 정비 (CUULONG, 꾸롱)	전체모임장소 -식당
	18:00	자유 활동 시간	
	22:00	조별, 개인별 수업 준비	
	23:00	하루일정 정리 및 취침	
1/21(월)	07:00	기상	
	07:30	아침식사 및 개인정비	
	09:00	수업준비(그룹별로 교육실습 여행연습, 통역팀과 호흡 맞춤)	학교 이동시간 30분
	11:00	점심식사 장소 도착 (인민위원회 지정) 푸득초 교감 선생님과 간단한 인사 및 선물 전달	

	14:00	오후 분반학습 I (14:00-16:10)	
	16:20	푸득초 교장 선생님과 인사 및 선물 전달 선교사님과 단장님(한철 교수님) 응원과 격려인사	
	17:00	숙소 이동 후 저녁식사 및 개인정비	
	20:00	조별 발표(베트남의 역사) & 조별, 개인별 수업준비	
	21:00	조별 물품 준비 및 임원회의 진행	
	23:00	하루 일정 정리 및 취침	
1/22(화)	07:00	기상	
	07:30	아침식사 및 개인정비	
	09:00	수업준비(그룹별로 교육실습 여행연습, 통역팀과 호흡 맞춤)	
	11:00	장광숙 선교사님과 만남 점심식사 장소 도착 (인민위원회 지정)	
	13:00	푸득초 교장 선생님 특강	
	14:00	오후 분반학습 II (14:00-16:10)	
	17:00	숙소 이동 후 저녁식사 및 개인정비	
	19:30	한국 vs 바레인 축구경기 단체관람	
	23:00	하루 일정 정리 및 취침	
1/23(수)	07:00	기상	
	07:30	아침식사 및 개인정비	
	09:00	수업준비(그룹별로 교육실습 여행연습, 통역팀과 호흡 맞춤)	
	11:00	점심식사 장소 도착 (인민위원회 지정)	
	14:00	오후 분반학습 III (14:00-16:10)	
	18:00	숙소 이동 후 저녁식사 및 개인정비	JOLLYBEE (페스트 푸드)
	19:30	최정진 교수 특별 강의 & 한철 교수 특별 강의	
	22:00	하루 일정 정리 및 취침	
1/24(목)	07:00	기상	
	07:30	아침식사 및 개인정비	
	09:00	수업준비(그룹별로 교육실습 여행연습, 통역팀과 호흡 맞춤)	

	11:00	현지 학교 도착, 점심식사	
	14:00	오후 축제 및 공동식사 (14:00-17:30) - 페이스 페인팅, 물풍선 게임, 보물찾기 등 - 인민위원회 인사 및 공동 저녁식사	발표 (한남대) - 숫자송 율동 - 서로 사랑하자
	18:00	쇼핑센터 방문 (빈롱)	
	19:30	호치민 대학교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	
	22:00	하루 일정 정리 및 취침	
1/25(금)	07:00	아침식사 및 개인정비	
	11:00	호텔 체크아웃	
	11:30	봉사현장 이동 사랑의 집짓기 근로봉사 (페인트 칠 및 주변정리)	
	14:0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무한리필 고기
	15:30	호치민으로 이동(4시간 소요)	King's Barbecue
	20:00	저녁식사(호치민)	한식 - 최고집 한식당
	21:00	세미나 및 전체 평가회 등 최종보고서 작성	
	23:00	롤링페이퍼 작성 및 취침	
1/26(토)	07:30	아침조회(QT 방별 실시) 및 식사	
	08:30	팀별 자유 활동시간(벤탄시장, 사이콩스퀘어)	
	12:00	점심식사(팀별)	
	14:00	팀별 자유 활동시간(벤탄시장, 사이콩스퀘어)	
	18:00	숙소 도착 및 통역팀과 마지막 인사	
	21:30	저녁식사 (팀별)	
	22:00	취침	
1/27(일)	08:00	아침식사 및 개인정비	
	09:00	주일예배	
	10:00	호텔 체크아웃 동시에 3개 방 체크인 호치민 인민위원회 청사, 역사박물관 (팀별 이동)	
	12:00	점심식사 (팀별)	
	13:00	팀별 자유 활동시간	
	15:00	호텔 도착 휴식	휴식
	17:00	저녁식사 후 호텔 체크아웃 및 팀별 자유 활동시간	
	21:00	호치민 공항 도착	
	02:00	호치민 공항 출발 - 제주항공 (7C4704)	
1/28(월)	09:20	인천공항 도착	

□ 학생 임원단

학생 대표: 김00 / 학생 부대표: 신00 / 회계: 전00 / 서기: 도00

팀장: 김00, 백00, 신00, 장00, 형00

□ 참가자 명단

연번	이름	학과	학년	
1	한 철	법학과		
2	최정진	정치.언론.국방학과		
3	양인철	전임교목		
4	곽00	00000학과		
5	권00	00000학과		
6	김00	00000학과		
7	김00	00000학과		
8	김00	00000학과		
9	김00	00000학과		
10	김00	00000학과		
11	김00	00000학과		
12	김00	00000학과		
13	도00	00000학과		
14	박00	00000학과		
15	박00	00000학과		
16	박00	00000학과		
17	명00	00000학과		
18	문00	00000학과		
19	방00	00000학과		
20	백00	00000학과		
21	신00	00000학과		
22	신00	00000학과		
23	이00	00000학과		
24	이00	00000학과		
25	양00	00000학과		
26	오00	00000학과		
27	장00	00000학과		
28	전00	00000학과		
29	정00	00000학과		
30	형00	00000학과		

## 2.준비 내용



## 2. 준비 내용

### 푸득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교안 - K-POP팀

배움목표	한국의 K-pop을 배우고 따라할 수 있다.	일시	2019.01.
교수학습자료	간식, 컴퓨터, 프로젝트	수업모형	체험하기

학습단계	주요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유의점*
		교수활동	학습활동		
도입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하기</li> <li>- 팀 소개, 각자 자기소개를 한다.</li> <li>-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하기</li> <li>- 선생님들의 소개를 듣는다.</li> </ul>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웃는 얼굴을 유지한다.</li> <li>◆ 분위기가 딱딱하면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준다.</li> </ul>
	배움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li> <li>- 케이팝 영상을 보여주고(자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들어본 적 있냐 질문을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li> <li>- 질문에 대답한다.</li> </ul>		
	배움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 활동 순서 안내하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을 보고, 학생들의 조를 나눠준다.</li> <li>☞ 조별로 나눠서 연습을 한다.</li> <li>☞ 연습한 것에 따라 퍼포먼스를 한다.</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 활동 순서 알아보기</li> </ul>	10분	
전개 1 (1차시)	울동 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동에 대해 설명한다.</li> <li>■ 조별로 울동을 동작 하나씩 직접 해본다.</li> <li>■ 울동 동작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하라고 지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동에 대해 듣는다.</li> <li>□ 울동을 직접 해본다.</li> <li>□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한다.</li> </ul>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드백을 할 때는 학생이 울동을 마친 후에 지도한다.</li> </ul>
	울동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습한 것을 바탕으로 앞에 나와서 울동을 하도록 지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에 나와서 울동을 한다.</li> </ul>	10분	
	마무리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과 인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과 인사한다.</li> </ul>		

## 푸득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교안 - 체육팀

배움목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고, 눈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한 팀이 돼서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봉사를 실천할 계획이다.	일시	2019.01.
교수학습자료	플라스틱 컵, 매직, 탁구공, 상품(과자)	수업모형	체험하기

이름	활동내용	준비물	자료(★) 및 유의점(♣)
컵타	<p>-먼저 자신의 컵에 매직으로 얼굴을 그리는 등의 꾸미기 시간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후 컵타의 기본 동작을 익히고 한국 동요에 맞춰 배운 동작들을 수행한다.</p> <p>-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사람과, 곁에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보조하는 사람의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을 진행한다.</p>	플라스틱 컵, 매직	
컵 쌓기	<p>-사전에 준비한 쌓기 모형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같은 모양으로 컵을 쌓게 한다. 각자 다른 색의 컵을 보기의 모양과 같이 쌓아올리는 과정에서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p>	플라스틱 컵	
탁구공 협력게임	<p>-(1) 옮기기 게임: 10명씩 3팀을 이뤄 컵을 이용해 탁구공을 마지막 주자에게 보내는 게임으로 10개의 공을 먼저 모으는 팀이 이기는 활동으로 진행한다.</p> <p>-(2) 튀기기 게임: 17명씩 두 줄로 세워 탁구공을 바닥에 튀겨 컵에 골인 시키는 게임으로 컵 안에 상품(젤리)을 넣어 획득하게 하는 개별적 활동으로 진행한다.</p>	탁구공, 상품(젤리)	

학습단계	주요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학습활동		
도입	소개하기	<b>■ 인사하기</b> - 팀 소개, 각자 자기소개 한다. -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학생들에게 다가간다.	<input type="checkbox"/> 인사하기 - 선생님들의 소개를 듣는다.	7'	
	배움동기 유발	<b>■ 동기유발</b> - 가위바위보로 동기 유발을 한다. (이긴 학생 상품간식 주기)	<input type="checkbox"/> 동기유발 - 가위바위보 하기		
	배움활동 안내	<b>■ 배움 활동 순서 안내하기</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컵타</p> <p>☞ 컵 쌓기</p> <p>☞ 탁구공 협력게임</p> </div>	<input type="checkbox"/> 배움 활동 순서 알아보기	3'	
전개 1 (1차시)	컵타 배우기	<b>■ 컵타에 대해 소개한다.</b> - 컵타 방법을 설명한다. - 컵타를 이용해 박자감을 익혀 유익한 시간을 가진다. <b>■ 컵타 시범을 통해 직접 가르친다.</b>	<input type="checkbox"/> 선생님 시범 설명을 듣는다.  <input type="checkbox"/> 컵타를 직접 해본다.	50'	
	컵타 실행하기	<b>■ 컵타를 실행한다.</b> -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면 직접 '아기염소' 한국동요를 틀어 박자에 맞춰 컵타를 알려주며 실행한다.	<input type="checkbox"/> 선생님의 시범을 본다.  <input type="checkbox"/> 컵타를 함께 직접 해본다.	50'	

학습단계	주요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학습활동		
전개 2 (2차시)	컵 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컵 쌓기에 대해 소개한다.</li> <li>- 컵 쌓기 놀이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li> <li>■ 선생님의 부름에 맞추어 컵 쌓기를 직접 실행해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에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한다.</li> <li>□ 컵 쌓기를 직접 해본다.</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들은 모듬을 맡아서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도와준다.</li> <li>- 학생들의 목표 달성 정도가 낮을 경우 목표치를 낮춘다.</li> </ul>
	탁구공 협력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구공 협력게임에 대해 소개한다.</li> <li>- 탁구공 협력게임을 통해 협동심을 배울 수 있음을 설명한다.</li> <li>■ 선생님의 부름에 맞추어 탁구공 협력게임을 직접 실행해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구공 협력게임에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한다.</li> <li>□ 탁구공 협력게임을 직접 해본다.</li> </ul>	25'	
정리	배움내용 정리  배움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내용 정리하기</li> <li>- 다양한 체육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가 무엇이었는지 묻는다.</li> <li>■ 배움 달기</li> <li>- 마무리 후 인사를 한다.</li> <li>- 단체사진 찍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내용 정리하기</li> <li>- 다양한 체육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를 말한다.</li> <li>□ 배움 달기</li> <li>- 마무리 후 인사를 한다.</li> <li>- 단체사진 찍기</li> </ul>	5'	♣배운 내용을 자신의 말로 다시 설명하면서 배움을 정리한다.

## 푸득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교안 - 만들기1팀

<b>배움목표</b>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관찰력과 관찰한 것을 그려보는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b>일 시</b>	2019.01.
<b>교수학습자료</b>	실, 흰색 무지 티셔츠, 물감, 붓, 물통	<b>수업모형</b>	그림으로 표현하기

학습단계	주요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학습활동		
도입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하기</li> <li>- 팀 소개, 각자 자기소개 한다.</li> <li>- 밝은 표정으로 먼저 다가가 분위기를 형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하기</li> <li>- 선생님들의 소개를 듣는다.</li> </ul>	5'	
	배움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li> <li>- 재료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주목시킨다.</li> <li>- 재료를 보여주고 어떤 활동인지 맞추면 간식을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li> <li>- 어떤 활동인지 맞춘다.</li> </ul>	10'	
	배움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 활동 순서 안내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 활동 순서 알아보기</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팔찌를 만들고 소원을 빈다.</li> <li>☞ 티셔츠에 친구의 얼굴을 그리고 친구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알아간다.</li> </ul>			
전개 1	실팔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팔찌 만드는 법을 설명한다.</li> <li>■ 실팔찌를 만들도록 지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다.</li> <li>□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실팔찌를 만든다.</li> </ul>	25'	- 선생님들은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준다.
	소원을 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찌를 차고 다같이 소원을 비는 시간을 갖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빈다.</li> </ul>	5'	

학습단계	주요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학습활동		
전개 2	친구의 얼굴 관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셔츠를 교환 할 친구를 정해 주고, 친구의 얼굴을 관찰하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셔츠를 교환 할 친구의 얼굴을 관찰하고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던 이미지를 떠올려본다.</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들은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준다.</li> </ul>
	티셔츠에 친구의 얼굴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셔츠에 친구의 얼굴을 그리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셔츠에 그림을 그린다.</li> </ul>	20'	
	친구를 그린 티셔츠를 함께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셔츠를 교환한 친구와 함께 나와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서로 한 가지씩 칭찬을 해준다.</li> <li>■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독려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의 예시를 듣고 어떻게 발표할지 구상한다.</li> <li>□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발표한다.</li> </ul>	5'	
정리	<p>배움내용 정리</p> <p>배움 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내용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친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수업의 전체적인 느낀 점을 발표하게 독려한다.</li> </ul> </li> <li>■ 배움 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만든 옷과 팔찌를 착용하고 단체사진을 찍는다.</li> <li>- 마무리 인사를 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내용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수업의 전체적인 느낌을 발표한다.</li> </ul> </li> <li>□ 배움 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든 것을 착용하고 단체사진을 찍는다.</li> <li>- 마무리 인사를 한다.</li> </ul> </li> </ul>	5'	

# 푸득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교안 - 만들기2팀

<b>배움목표</b>	점토를 사용함으로써 오감발달에 도움이 된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듦으로써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b>일시</b>	2018.01
<b>교수학습자료</b>	천사점토, 포장용 끈, 볼펜, 사인펜, 목공풀, 글루건, 간식(젤리)	<b>수업모형</b>	만들기

학습단계	주요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학습활동		
도입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하기</li> <li>- 팀 소개, 각자 자기소개 한다.</li> <li>-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하기</li> <li>- 선생님들의 소개를 듣는다.</li> </ul>	5'	
	배움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li> <li>- 천사점토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도형 만들기</li> <li>- 사인펜을 이용하여 점토를 원하는 색으로 바꾸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열기</li> <li>- 천사점토에 대한 촉각을 느끼기</li> <li>- 여러 가지 색 조합해보며 흥미 유발하기</li> </ul>	5'	
	배움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 활동 순서 안내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 활동 순서 알아보기</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토로 각자 만들고 싶은 캐릭터 만들기</li> <li>☞ 볼펜 중심을 포장 끈으로 꾸미기</li> <li>☞ 목공 풀을 이용하여 캐릭터와 볼펜을 붙이기</li> </ul>					
전개 1	천사점토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토에 원하는 색의 사인펜을 칠하면 색이 바뀐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인펜을 이용하여 점토의 색 바꿔본다.</li> </ul>	10'	- 선생님 들은 각각 한 모뎀씩 맡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도와준다.
	천사점토로 간단한 도형(별, 하트 등)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에 넣으면 안 되고 만들기에만 사용한다.</li> <li>■ 간단한 도형들을 만들어봄으로써 자신이 만들고 싶은 캐릭터 생각하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다.</li> <li>□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듦으로써 자신이 어떤 캐릭터를 만들지 생각한다.</li> </ul>	15'	

학습단계	주요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학습활동		
전개 2	천사 점토로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도록 지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든다.</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모듬에 선생님 한명씩 배치하여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도와준다.</li> <li>- 본드가 뜨겁고 빨리 굳으니 선생님들이 글루건으로 붙인 후 아이들에게 준다.</li> </ul>
	포장 끈으로 볼펜 몸통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만든 캐릭터와 어울리는 포장 끈으로 볼펜 몸통을 꾸미게 지도한다.</li> <li>■ 포장 끈을 볼펜에 붙일 때는 각 조의 담당 선생님께 가져와서 선생님이 직접 글루건을 붙이게 지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캐릭터와 어울리는 포장 끈을 고른다.</li> <li>□ 포장 끈을 골랐으면 선생님께 갖다드린다.</li> </ul>	15'	
	목공풀을 이용하여 캐릭터를 볼펜에 붙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공풀로 캐릭터와 볼펜을 떨어지지 않게 잘 붙이도록 지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공풀로 캐릭터와 볼펜을 잘 붙인다.</li> </ul>	15'	
정리	<p>배움내용 정리</p> <p>배움 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내용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사점토는 오감발달에 도움이 되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시간 창의적인 시간이 되게 한다.</li> </ul> </li> <li>■ 배움 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을 전시하고 난 후 단체사진 찍기</li> <li>- 마무리 인사를 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내용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사점토에 대한 촉각을 느끼고,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캐릭터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li> </ul> </li> <li>□ 배움 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을 전시하고 단체사진을 찍는다.</li> <li>- 마무리 인사를 한다.</li> </ul> </li> </ul>	5'	



# 푸득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교안 - 한국어 교육팀

<b>배움목표</b>	학생들이 한국어(자음, 모음)에 대해 친숙해질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쓰고 읽을 수 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숫자를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다..	<b>일시</b>	2019.01.
<b>교수학습자료</b>	A4용지, 색종이, 풀, 매직(5개), 음악(숫자송), 자음 모음표, 숫자 카드, 명찰(약 200개), 캔디류, 소정의 선물(피젯스피너)	<b>수업모형</b>	활동하기

학습단계	주요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학습활동		
도입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하기 팀에 대해 통역 친구가 간단히 소개해주고, 각자 베트남어로 자기소개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하기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소개를 듣는다.</li> </ul>	7'	♣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한다.
	배움동기 유발  배움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 박항서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이끈다.</li> <li>■ 배움 활동 순서 안내하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기</li> <li>☞ 자음, 모음을 다함께 읽어보기</li> <li>☞ 1) 한국어로 된 명함 만들기</li> <li>2) 안녕, 사랑해, 고마워 위에 색종이 찢어 붙이기</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 활동 순서 알아보기</li> </ul>	3'	
전개 1	한국에 대해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대해서 소개한다. 칠판에 간단하게 한국과 베트남을 그린 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다.</li> <li>■ 한국어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려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은 설명을 듣는다.</li> <li>□ 한국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li> </ul>	12'	★ 자모음표
	자음과 모음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음에 대해 설명한다. 자음을 다함께 읽어보기</li> <li>■ 모음에 대해 설명한다. 모음을 다함께 읽어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자음, 모음표를 보고 함께 읽도록 한다.</li> </ul>	6'	
	한국어로 된 명함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로 된 명함 만들기 통역 친구와 함께 교실을 돌아 다니며 학생 한명 한명의 이름을 듣고 명찰에 한국어로 이름을 써준다.</li> <li>■ 안녕, 고마워, 사랑해 위에 말을 어떤 상황일 때 쓰는지를 설명한다. 그런 뒤 학생들에게 A4용지를 나눠주고 그 위에 자신이 원하는 말을 택하여 쓰게 하고 색종이로 붙이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함께 안녕, 사랑해, 고마워 짝꿍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준다.</li> </ul>	22'	

학습단계	주요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학습활동		
전개 2	한국 숫자 읽는 법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숫자 읽는 법 숫자와 한국어가 적힌 카드를 준비해서 읽는 법을 설명한다. (2가지 읽는 방법)</li> </ul>		5'	★ 숫자 카드  ♣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울동 발표한 친구에게 소정의 선물을 준다.
	숫자 읽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까지 함께 읽어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과 함께 숫자 카드를 보며 읽는다.</li> </ul>	5'	
	숫자를 활용한 놀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동시간 숫자송 울동을 알려준다. 알려준 울동을 노래에 맞춰 다함께 해본다.</li> <li>■ 울동 발표시간 손을 들어 각 반에 5명만 선택하여 앞에 나와서 울동을 하게 한다. 울동을 하고 난 후에는 용기에 대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숫자송 노래에 맞춰 울동을 할 수 있게 한다.</li> </ul>	20'	
정리	배움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 내용 정리하기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상기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 내용 정리하기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한다.</li> </ul>	5'	★ 퀴즈를 맞추는 학생에게는 사탕을 준다.
	배움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 달기 만든 명함을 목에 걸고 색종이를 찢어 붙여 만든 말 (안녕, 사랑해 고마워)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li> <li>■ 마무리 인사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무리 인사를 한다.</li> </ul>		

# 3. 린튼리더십 봉사활동

### 3. 린튼 리더십 봉사활동 [2018.12.21] 연탄 나눔 봉사



린튼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들이 21일 대전시 대덕구 회덕동의 한 마을을 찾아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연탄 총 1500장을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본교는 지난 추수감사절을 맞아 대학 구성원들이 모은 헌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대덕구자원봉사 센터의 지원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출처: HNU 뉴스]

## [2019.01.18] 해외봉사단 발대식



린튼리더십 베트남 해외봉사단 발대식이 18일 오후 1시 30분 정성균선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조용훈 교목실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해외봉사 일정보고, 학생대표 선서, 이덕훈 총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베트남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학생 27명과 인솔교수 3명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단은 베트남 빈롱성에 있는 푸득 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국어, K-pop, 미술, 체육활동 등의 교육봉사와 현지인의 집짓기를 도와주는 근로봉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린튼리더십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본교 초대총장인 윌리엄 린튼(한국명 인돈)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각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고 신앙지도교수를 위촉해 국내·외 봉사를 비롯해 학과 신앙공동체, 린튼리더십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업과 신앙을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2016년부터 국내 봉사 외에 미국, 태국, 러시아 등에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출처: HNU 뉴스]

## 체육팀



철저한 준비는 필수적이지만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문화와 낯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공간의 물리적인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만들기1팀



수업은 3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3학년, 4학년, 2학년 순으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3시간가량의 수업시간에 소원 팔찌 만들기와 부채그림기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친구들의 나이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실을 엮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베트남어의 좌우를 배워 이해하기 쉬운 제스처와 설명으로 쉽게 따라하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비교적 쉬운 부채 만들기는 친구들의 상상력을 발휘해 자유롭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부채에 서로의 이름을 써주며 한걸음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친구들과 운동장에 나가 손잡고 뛰며 함께 어울렸고, 비록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며 서로에 대한 호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준비한 것들을 열심히 따라주고 낫설었을 텐데 먼저 다가와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져서 이 친구들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아이들로 인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 친구들은 작은 것에도 웃고 모든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푸득씨 초등학교 아이들과의 만남은 우리는 비록 대화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한 시간이 우리의 연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해주었고 복음이 닫힌 베트남 땅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크신 계획이 분명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린튼 리더십스쿨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베트남 선교활동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함께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힘듦과 고난을 모두 함께 나누니 그 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 과정을 통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 만들기2팀



저희 팀은 불펜 만들기과 필통 만들기 2개의 활동을 했습니다. 불펜과 필통 만들기로 활동을 정한 이유는 봉사하는 아이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불펜 만들기는 점토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나 모양, 도형 등등을 만들어 글루건으로 불펜에 붙여 자기만의 불펜을 만들었습니다. 필통도 마찬가지로 무지필통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 자기만의 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푸득씨 초등학교에서 봉사를 하며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사랑 주러 왔다가 사랑받고 왔다'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나눔을 하려고 갔지만 학교 앞에 버스가 오면 그들을 위해 왔다는 것 자체로 버스발로 뛰어와 반겨주던 학생들, 준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재미있어 하며 참여해주었고, 우리를 처음 보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우리들을 좋아하며 몸으로 부딪히며 교감을 했던 점, 푸득C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마지막 날 맛있는 음식을 주신 점을 생각하면 사랑을 잔뜩 받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만큼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전체 학년을 수업을 하지 못한 점, 각 학년별 인원수 파악이 되지 않아 재료를 부족하게 챙겨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 한국어 교육팀



한국어 교육팀은 3일 동안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때마침 베트남은 아시아 월드컵 경기에 참가한 국가였고 더군다나 8강 진출을 앞두고 있는 터라 박항서 감독을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는 베트남 아이들에게도 유명했습니다. 박항서 감독과 BTS로 한국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고 한국어를 배우기에 앞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음과 모음을 설명해주었는데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 수업 계획을 수정하여 간단한 인사말 ‘안녕하세요, 사랑해, 고마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며 가며 배웠던 말인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굉장히 벅찼습니다. 배운 말을 종이 위에 써보고 그 위에 색종이로 붙이는 활동도 했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발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명찰도 선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간단한 숫자 게임과 숫자송을 통해 한국어로 숫자 읽는 법을 알려주었고 아이들과 숫자송 율동을 함께 하며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지만 저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기뻐고 행복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이 통해 힘들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봉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천사 같은 아이들을 다시 만나 행복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 4.우리가 경험한 베트남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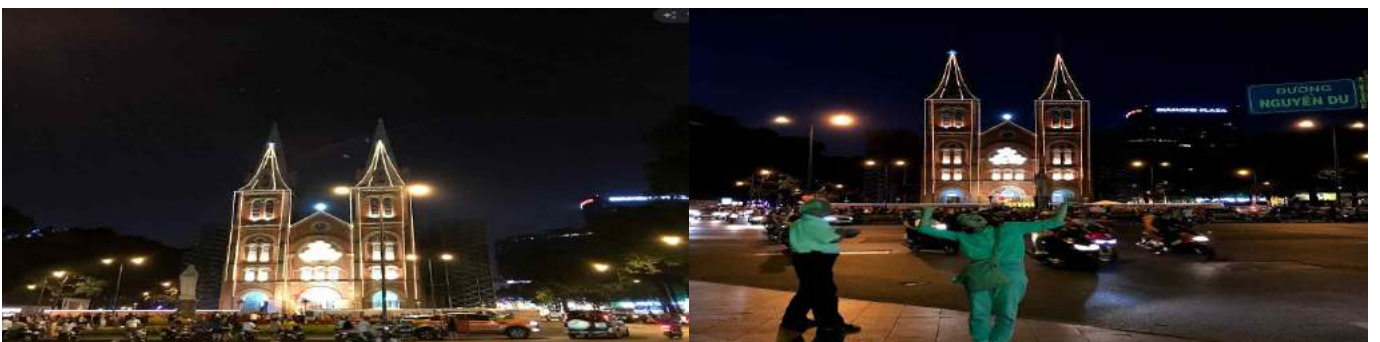
## 4.우리가 경험한 베트남 역사와 문화 (명소)

### 호치민 인민위원회 청사



‘호치민 인민위원회 청사’는 호찌민시(市)을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시 청사로 쓰였던 인민위원회 청사 건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902년에서 1908년에 걸쳐 당시 호찌민의 옛 이름인 사이공(Saigon)의 시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랑스 스타일로 지어져서 그런지 베이지색과 흰색이 조화된 벽에 붉은 지붕이 인상적인 유럽풍의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된 이래 호찌민 인민위원회 청사(시청)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 정면에 위치한 작은 광장에는 호찌민의 동상이 있습니다.

### 사이공 노트르담 성당



‘사이공 노트르담 성당’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네오고딕 양식의 성당입니다. 천주교도가 많은 베트남에서는 휴일 미사가 되면 많은 경건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들어가지 못한 신자가 건물 정면의 광장에 넘쳐나는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관광지로도 인기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 호찌민 중앙 우체국



‘호찌민 중앙우체국’은 동코이 거리에 있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우체국 건물은 프랑스 콜로니얼 양식의 장엄한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우체국 내부를 보고 싶었지만 입장 시간을 놓쳐서 가지 못해 아쉬운 마음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우체국 내부는 오래된 기차역처럼 넓고 웅장하며 베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높은 아치형 천장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베트남 국내외 우편물 접수 외에도 국제 택배 창구와 국제전화용 부스를 갖춰 여행자의 편의를 돕고 역사적인 건축물 관람과 더불어 여행의 추억을 담은 엽서를 부칠 수도 있어 현지인뿐만 아니라 여행자들도 즐겨 찾는 명소라고 합니다.

## 호찌민 통일궁



베트남 호찌민의 중심부에 있는 대통령궁으로 베트남어로 호이쯔엉통녓(Hoi Truong Thong Nhat)이라고 부릅니다. 1868년 프랑스 식민지 정부가 인도차이나 전체를 통치하기 위한 건물로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1954년 7월 제네바협정 체결 후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이때부터 월남 초대 대통령 응오딘지엠의 대통령궁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에는 프랑스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것을 기념해 독립궁으로 불렸습니다. 1962년 월맹 공군의 폭탄투하로 파괴된 뒤, 1966년 까지 새로 개축해 이듬해부터 1975년 4월 월남이 패망할 때까지 다시 대통령궁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월맹과 월남이 통일된 것을 기념해 지금의 이름 ‘통일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 베트남 전쟁 박물관



베트남 전쟁 박물관은 다른 외국인들에게겐 흥미롭게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전쟁 역사가 있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박물관에는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무기, 전투기, 탱크 등등 전쟁에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이 이길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땅굴을 이용한 게릴라전이었는데 박물관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땅굴 길이가 어마 무시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시민극장



르로이(Le Loi) 거리와 동카이(Dong Khoi) 거리가 만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공 오페라하우스(Saigon Opera House)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897년에 완성된 건물로 밝고 화려한 석조 건축물에 붉은 계열의 지붕을 하고 있어 프랑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상연되는 공연은 매우 다양한 편이며, 클래식 음악뿐 아니라 베트남의 전통극이나 서커스 등도 공연된다고 합니다.

## 4.우리가 경험한 베트남 역사와 문화 (음식)

첫 숙소에서 맛있는 아침 식사는 뷔페식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먹고 싶은 것을 접시에 덜어 먹으면 됐습니다. 대부분 어느 한국 호텔과 비슷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쌀국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따뜻한 국물과 쌀국수를 함께 먹으니 속도 뜨끈해지고 든든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곳은 클린턴 전 대통령후보님께서 방문해서 더욱 더 유명해진 PHO2000 쌀국수집입니다. 저희가 먹었던 음식은 소고기 쌀국수와 새우튀김롤이었습니다. 새우튀김롤은 쌀국수보다 먼저 나와 고픈 배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튀김도 바삭하고 안에 새우는 담백하니 맛이 괜찮았습니다. 찍어먹는 소스도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우튀김롤을 다 먹고 나니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뜨끈한 고기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 나서 행복해 하던 기억이 아직도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PHO2000은 다른 가게에 비해서 비싼 편이었습니다.



베트남 빈롱시로 이동중에 먹었던 베트남 돼지고기 덮밥인 '검승'입니다. 이 가게는 기른 돼지를 직접 잡아서 만들어서 그런지 돼지 누린내도 나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에 달콤한 양념소스를 입히고 직화 구이처럼 익혀 밥과 함께 먹습니다. 옆에 시금치 같이 생긴 것들은 한국의 김치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 5. 조별 발표

## 베트남 독립 전쟁 (발표자 - 한국어교육 장OO)



베트남은 수많은 외세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고, 근대에 들어서는 1859년부터 1954년까지 근 백년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으며, 프랑스를 몰아낸 후에는 미국과 해방전쟁을 치루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트남 독립운동의 중심인물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혁명가이자 정치가이며, 구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베르사유 회의에 출석하여 '베트남인민의 8항목의 요구'를 제출하여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또한 이후 혁명 운동을 계속하며 베트남의 독립 총봉기를 주도해 베트남민주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 주석으로 취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독립 운동이 시작된 원인은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식민주의 때문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는 인도와 중국을 잇는 해상로에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서구 열강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디엔 비엔 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의의는 서구 열강을 상대로 전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프랑스와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체제와 이념이 다른 형태로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것과 이는 또 다른 전쟁(대미 해방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 베트남 해방운동과 현대 (발표자 - 체육 형00)



### 해방운동의 역사

[프랑스의 식민지 베트남] 베트남은 1883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 해인 1946년, 프랑스는 다시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사회주의자 호찌민] 오랫동안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이끈 호찌민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베트남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게 되고 결국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군이 1954년에 프랑스를 베트남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민족분열, 남베트남 VS 북베트남] 프랑스를 베트남에서 내쫓은 호찌민과 독립군은 베트남에 사회주의국가를 세우려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강대국들이 베트남이 사회주의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남쪽은 미국이 지원하는 남베트남이 들어섰고, 북쪽은 호찌민이 이끄는 사회주의 독립국가 북베트남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남베트남의 위기] 남베트남의 대통령이었던 응오딘지엠은 사람들을 탄압하는 독재 정치를 시행하였고, 남쪽에 호찌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민족해방전선] 남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자율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게릴라활동의 정치적 기구는 베트남(Viet Cong:베트남공산주의자)이었습니다. 1959년 후반부터 주로 메콩강의 델타지역에서 게릴라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베트남들은 1960년 12월 20일 사이공 서북방 밀림에서 베트남의 통일과 평화·중립·독립을 위하여 이 단체를 결성하였습니다. 창립대회에서는 100여 명이 참가해 남베트남 정부의 타도와 민족민주연합정부의 수립, 독립과 자주경제 건설,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적 재통일 등 10개항의 정치 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1967년 8월에는 임시전국대회를 열고 창립시의 강령을 구체화한 신정치강령을 채택하였고 제네바협정 후 남으로 이주한 많은 북쪽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였고, 1960년대부터 북베트남은 이 단체에 대한 군사원조를 증가시켰습니다. 북베트남 통제 하에 있던 인민혁명당(남베트남공산당)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두 조직의 구분이 힘들어져 1969년 6월 민족평화연합·민족민주연합전선 등과 협력하여 남베트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하였고, 1975년 4월 북베트남 군대와 함께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30년 동안 계속되던 전쟁을 끝냈습니다. 1976년 베트남이 통일되자 베트남 공산당 등 다른 단체와 함께 베트남민족통일전선을 만들었습니다.

해방운동이 일어난 이후 현대에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문화, 정치, 경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문화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쟁을 모티브로 한 음악, 문학, 영화 등 문화 전반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났고, 정치 같은 경우는 당 조직 개편, 정치지도자 교체, 최고인민위원회, 중앙정부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개편 등이 있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엔 생산수단 국유화, 집단화 정책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 베트남의 종교 (발표자 - 만들기1 전00)



베트남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남아시아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남아시아는 크게 도서부와 대륙부로 나눌 수 있는데 고대부터 편서풍을 타고 이 지역을 방문한 아랍 상인에 의해서 도서부가 이슬람 종교에 큰 영향을 받았고 대륙부는 인도 상인들에 의해서 불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는 편서풍을 타고 이 지역을 방문한 상인들이 다시 바람이 바뀔 때까지 긴 시간을 체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곳에 사원을 짓고 그들의 종교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트남은 좀 더 특이한 문화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나라 말기 한나라 초기 시절 즉 '초한지'의 시대에 중국의 조타' 라고 하는 장수가 베트남으로 가서 왕조를 세웠을 정도로 중국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중국에 의해서 직간접적인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들어온 것이 중국의 유교, 도교 문화가 베트남에 들어왔으며 이후 7세기경 중국으로부터 선종이 들어오면서 중국 대승불교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변국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소승불교인 것에 대비됩니다.

이후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기독교(로마 카톨릭 교회, 개신교)등이 베트남으로 들어왔으며 그 외에 까오다이교와 호아하오교 같은 신흥 종교도 있습니다. 까오다이교는 1926년 베트남 남부의 터이닌에서 응오반째우에 의해 창시된 불교, 기독교와 토속신앙이 혼합된 유일신 사상이며, 호아하오교는 베트남 남부에서 기원한 불교에 바탕을 둔 신흥 종교이다. 1939년 후인 푸 소가 창시하였습니다. 발원지인 메콩강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략 200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추산됩니다. 이들은 한국의 동학과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종교가 호국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 종교란 인민의 마약이다 라고 하며 종교를 탄압하는데 일례로 북한에는 절과 교회 등의 건물은 남아있지만 안내원들만이 있을 뿐 신자는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 또한 과거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지만 예로부터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중국, 인도의 영향을 받은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만은 탄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제한적인 종교 활동은 허용되고 있는데, 정부의 허가 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불법이며, 집회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선교는 불법입니다.(한 달 전에 미리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의 종교 정책이 탄압 정책에서 종교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실용 정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베트남 문화 (발표자 - 만들기2 박00)



[베트남 국명의 역사] 베트남이라는 말은 1804년 르웬왕조 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이름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남쪽에 있는 '비엣족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1945년까지 '나잇남'이라는 이름과 혼용되다가 1945년 호치민이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선언했지만 후에 1975년 항미전쟁을 끝내면서 통일 베트남을 세우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지금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기후] 베트남은 나라가 아주 길기 때문에 날씨도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남북 길이가 1,700Km이니 정말 길죠! 북쪽에 있는 하노이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영상 4~5도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온도도 아주 춥다고 느껴집니다. 집에 난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쪽에 있는 호치민은 일 년 내내 덥다고 합니다. 꽤 더울 때는 영상 40도까지 되기도 한답니다. 남쪽 사람들은 항상 햇볕을 받으니 얼굴빛도 조금 검은 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인구 구성] 베트남 사람의 90%가 킨족이고 53개 소수민족은 대개 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민족끼리 따로 모여살고 있어서 다른 문화와 잘 섞이지 않은 상태이고 문명도 아직 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도시로 나오면 복장이나 느낌으로 소수민족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4개 민족을 모두 합쳐 '비엣족'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국기] 1945년에 민주공화국을 만들면서 '금성홍기'를 정식 국기로 제정하였습니다. 빨간색은 혁명, 즉 베트남 사람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흘린 피를 말합니다. 노란색은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 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아마 예전에 중국영향을 받아 왕의 복장도 노란색이었는데 그것이 기원이 된 것 같습니다. 별의 5개 모서리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 5개의 그룹이 단결하여 적을 물리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사] 처음 만났을 때 미소를 짓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악수를 하고, 여성은 한국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바라보고 웃는 얼굴로 인사합니다. 특히 설에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서로 방문해서 덕담을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 저도 꼭 그 댁을 방문해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베트남 음식] 베트남 사람에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익히지 않은 음식, 예를 들면 회 같은 거 잘 안 먹지 않는다고 해요. 개고기 요리는 아주 흔하고, 개고기를 이용한 9가지 요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부족 중에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설날 먹는 떡이 있는데 ‘바잉 쩌’ 이라고 합니다. 찹쌀 속에 녹두와 돼지고기를 넣고 라종잎으로 싸서 대나무 줄기를 가늘게 쪼갠 끈으로 묶어서 찍니다. 그래도 가장 유명한 베트남음식은 쌀국수와 월남쌈입니다.

[베트남 옷차림] 예전 베트남 여성들은 ‘아오이엠’이라는 등판이 없는 윗옷과 ‘베이엠’이라는 검정치마를 일상복으로 입는다고 합니다. 예를 갖춰야 하는 경우에는 아오자이를 입었는데, 아오자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요즘은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월요일에 흰색 아오자이를 교복으로 입기도 하고,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여성 직원의 유니폼으로 입습니다. 그러나 아오자이는 서 있을 때는 아주 예쁘지만 앉으려면 정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남성 아오자이는 결혼식 같은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입는 옷이 되었습니다. 또 베트남 여성들에게 긴 생머리란 옛날부터 여성에게 가장 아름다운 머리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아오자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여서 여성들도 긴 생머리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머리 염색은 거의 안한다고 합니다. 염색하는 여성은 좀 못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자기 애인이나 아내가 머리를 염색하면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주거와 일상생활] 86년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외국자본을 받아들이는 도이모이(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집과 직업을 배정하던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도 알아서 구하고 집도 알아서 구할 수 있고, 이미 제공받은 집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여성들은 특별히 혼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결혼은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여자 집에 가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식장에 가 결혼을 하고, 혼인 잔치는 양쪽 집에서 따로 하며 신혼집은 여유가 있으면 따로 살기도 하지만 아닐 경우 시부모님 집에 산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동도 편리하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자들이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성인들은 거의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 가격이 싸지기도 했지만,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교사, 의사가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경찰, 군인 같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연금이 나와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는 직업을 좋아합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 베트남은 생활양식이 서서히 현대화 서구화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베트남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보기보다 편안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대하는 편입니다. 베트남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보통은 할아버지 대(代)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요즘 들어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뒤에도 제사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것은 베트남의 아주 중요한 문화입니다. 제사 때는 집 모형이나 돈(달러까지도) 모형을 태우는 문화가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저 세상에서 그 집과 돈으로 다복하게 지내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남과 여] 베트남은 여성과 남성이 상당히 평등하다.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맛별이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여성도 직장이 없으면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여성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은 5시인 퇴근 시간을 앞당겨 4시쯤 퇴근해도 될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제사를 모셔야 해서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불임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에,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가 생기면 아주 고마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육]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고 나머지는 유상입니다. 교육비와 병원비가 무상은 아니지만 아주 싸다. 국립대는 한 달에 등록금이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이고 사립은 그것의 2배 정도이다. 사립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0명 중에 한두 명만 대학에 가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든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은 공부를 아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방학은 없고 여름방학만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있다. 모든 학교는 9월 5일에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겨울에 영상 8도 이하로 내려가면 모든 초등학교가 휴교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는 7시에 시작하고 11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을 13시 30분까지 2시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낮잠도 잠깐 잔다고 합니다. 학교는 오전에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오후에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후 학교는 1시 30분부터 시작한다. 학교 수업 시간은 4시간이고, 요즘은 사설학원이 많이 생겨서 수학,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같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월요일 아침마다 국기 게양식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설 때 게임기를 가지고 놀거나 만화를 보고 장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줄넘기, 숨바꼭질 같은 것을 하고 놀았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색깔과 숫자] 베트남 사람은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화려한 색을 좋아합니다. 색은 검정을 싫어하는데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로 빨간색과 검정색을 사용합니다. 숫자는 9를 좋아하는데 완벽한, 영원한, 가득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럭키 7도 좋아합니다. 만나는 날을 정할 때 참고하면 좋습니다. 반면 숫자 3과 5는 죽음과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에 탑을 줄 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 베트남 역사연구 (발표자 - K-pop 김OO)



베트남이 처음 건국된 것은 B.C 2900년대입니다. 기원전 110년부터 948년까지 중국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지배를 벗어나서 958년에 '대월'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1802년까지 쭉 지속이 됩니다. 이 나라에는 3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 3명이 베트남 대월을 땅따먹기 하는 것처럼 3등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응우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1847년에 프랑스가 침략하게 됩니다. 침략하게 된 이유는 베트남이 가톨릭을 믿지 못하게 하고 프랑스 선교사님들을 죽이고 심하게 박해했어. 그래서 프랑스가 와서 베트남 군인들을 한 1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이때부터 베트남이 프랑스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가 침략한 적이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처음 베트남에 침략한 다음에 1896년에 우리나라로 침략을 합니다. 이유가 베트남과 같았어. 우리나라도 프랑스 신부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강화도에 쳐들어 온 이것이 병인양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는 베트남을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대신하여 일본이 베트남을 4년 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같은 연합국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치민이 베트남의 남부에 호치민 차이나 공화국이 세워지게 되고, 북부에는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우게 됩니다. 베트남은 주로 전쟁을 할 때 땅굴을 파고 땅굴 속에서 살면서 밤이 되면 기습하는 게릴라전을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와 전쟁을 할 때도 1858년 띠엔 푸라는 곳에서 프랑스를 패배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베트남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데 이를 미국이 가만히 두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주의고 호치민은 공산주의였으니까요.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그 주변의 국가도 공산국가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두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명분으로 1965년에 미국이 베트남에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베트남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이기게 됩니다. 베트남에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있는데 남베트남에 베트콩이 있었어요. 베트콩들은 베트남을 하나로 만들고 싶었는데 남베트남이 강대국인 미국과 합세했어. 그래서 베트콩들이 주로 미군들이랑 싸웠습니다. 남베트남에 '응후옌 쩌엠'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치를 굉장히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베트남은 한 사람이 땅이 소유하고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나눠주고 경작하는 농사 시스템이었는데 '응후옌 쩌엠'이라는 사람이 지주들의 땅을 다 몰수 해버리고 그 땅을 하나씩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고 그런 다음 또 다시 땅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미군 지원 아래에 있던 남베트남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남베트남 사람들과 베트콩들은 응후옌 쩌엠을 모두 싫어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는 데 응후옌 쩌엠은 시위하는 학생을 강에 던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한 스님이 분신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베트콩들이랑 남베트남 사람들은 남베트남에 신의를 저버리고 북베트남에 우호적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68년에

북베트남과 우리나라가 함께 구정 1월 1일에 대공습을 하게 됩니다. 구정이여서 남베트남 군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기에 북베트남이 이를 기회 삼아 기습을 하게 됩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궁궐을 점령하고 전세를 역전시켰음에도 미국이 너무 강했습니다. 미국이 북베트남 4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미국인 기자 한명이 미군들 시체를 찍어 미국 방송에 내보냅니다. 이를 본 미국은 이러다 자신들이 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전쟁을 그만 하자고 하고 1969년에 닉슨이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너희 아시아인들은 이제 너희들끼리 해결해. 우리는 이제 군사 개입 안 할 거야." 그래서 1970년에는 미군들이 떠났습니다. 당시 남베트남은 전투기가 1800대도 있고 돈도 많이 있었던 반면에 북베트남은 40만 군인과 재래식 무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에 남베트남이 침략되고 이미 남베트남의 부정부패에 신의를 저버렸던 국민들이 남베트남을 환영합니다. 북베트남은 1975년 4월에 사이공 제외한 여러 도시들이 함락시키고 1975년 4월에 사이공도 함락돼서 지금의 베트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6.개인별 느낀 점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K-pop
활동 전 기대했던 점	1학년 1학기 채플시간에 정말 감명 깊게 본 유니세프 영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며 해외봉사를 꼭 가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린튼 리더십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을 직접 만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과의 만남이 가장 기대가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었지만 굳이 꼽자면 이른 아침 일정을 시작하여 소화하는 것들이 조금 피곤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좋았던 점	기대했던 만큼 푸득 초등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 아이들은 정말 밝았고,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고 사랑을 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푸득 초등학교에서의 4일 동안 교육봉사는 너무나 짧게 느껴져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달하지 못한 선물과 다 못한 이야기들도 많아 기회가 된다면 혼자라도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해외이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아침 시작일정을 조금 늦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치아 상태를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치아가 잇몸까지 썩어 있었습니다. 양치를 하는 방법들과 양치 컵 만들기 등등 치아에 관한 활동을 하면 더욱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푸득 초등학교 해외봉사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전해주지 못한 선물도 주고오고 싶고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오고 싶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봉사는 치열한 경쟁 속의 저를 벗어나게 해주었고 다친 마음을 힐링 시켜주었습니다. 값진 체험하게 해준 목사님들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K-pop
활동 전 기대했던 점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베트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해외봉사를 가기 전에 30여명의 학생들이 꼼꼼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서 별 무리 없이 순조롭게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점	푸득 초등학교 아이들과 활동적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더운 날씨였기 때문인지 조금 힘들었지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에 열심히 임하는 아이들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좋았던 점	봉사를 하면서 뿌듯함을 느낀 게 가장 좋았습니다. 뿌듯함이라는 감정이 내가 행복함에 젖어 있게 만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함께하여 무사히 해외봉사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큰 안정감을 받았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큰 징검다리 새우를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든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은 해외봉사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법한 경험들을 많이 해서 좋았고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 때마다 모두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이고 해외봉사를 가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내면을 더 가꿀 수 있는 활동이기도 했기 때문에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히 리더십 있는 사람의 말대로 따라가던 내가 앞장서서 먼저 의견을 표출하고 이끌어 가는 행동을 한 것도 처음이었고, 남을 위해 절실하게 기도해 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갖고 가게 되어 행복합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K-pop
활동 전 기대했던 점	베트남에 가보지 않아 기대되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 베트남 갈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힘들었던 점	봉사활동이 조금 빠빠하긴 했지만, 봉사활동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니까.	
좋았던 점	다른 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믿는 친구들과 같이 가서 믿음을 공유했던 것이 좋았습니다. 베트남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껴서 좋았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마지막 한마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K-pop
활동 전 기대했던 점	생애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서 많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식구들과 만나고 그들과 잘 어울리고 싶었고,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곳의 역사, 문화 등을 미리 알아봤으며 현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힘들었던 점	다행히 음식은 제 입맛에 맞았지만 다른 식구들이 병에 걸려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기도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좋았던 점	현지 초등학생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이 좋았습니다. Team Work도 잘 맞춰졌으며, 그들의 미래가 밝게 보였고, 소중한 경험을 얻은 저희들의 Vision도 더 커졌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조별마다 아침모임을 진행해야 했지만 PK가 2명이나 있었지만 저희 조는 암묵적 협의 하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학과 식구들과 아침모임을 진행하니 이 협의는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조는 기독교학과 학우를 최소 1명씩 넣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Christian Vision이 더 커지고 소중한 일꾼이 더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K-pop
활동 전 기대했던 점	<p>국내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설레고 기대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국내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해외봉사는 기회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봉사뿐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p>	
힘들었던 점	<p>이번 린튼 리더십 팀원들과 단기간에 친해 질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서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는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이나 음식 부분에서 힘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었고 뿌듯했습니다.</p> <p>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팀별로 활동을 하는데 팀장이 너무 팀원들에게 관심을 안가지고 따로 행동한다고 느껴서 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팀원 보다는 베트남 통역하는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개인 방송을 하려는 모습 때문에 지켜보는데 아쉬웠습니다.</p>	
좋았던 점	<p>베트남 아이들과 언어가 달라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몸으로 표현하고 눈으로 소통하며 8박10일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함께 했던 린튼 리더십 스쿨 학생들과 목사님 교수님들이 모두 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고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p>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p>베트남을 가기 전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비행기 편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공지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어서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팀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를 정해놓고 팀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활동부서가 겹치는 게 여럿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개선되어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p>	
마지막 한마디	<p>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관계자 분들, 린튼 리더십 스쿨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p>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K-pop
활동 전 기대했던 점	베트남에 교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기대가 되었고 또다시 해외 선교를 가는 거에 너무나 설렘니다.	
힘들었던 점	같이 간 동역자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 짐이 많은 상황이라 이동이 힘들었고 혼자서 사진을 한다는 부담이 강해서 힘들었습니다.	
좋았던 점	마지막(출국 하루 전)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의약품 준비를 진짜 재난대비 급 수준으로 하며 린튼 리더십 스쿨 홍보가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홍보를 위해서 학기 초와 학기말 때쯤에 동영상 틀고 채플 때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기말에 모집한다고 하기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다음에는 미디어학과 학생을 고용해주세요.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체육
활동 전 기대했던 점	<p>우선 베트남 음식을 한국에서도 즐겨 찾는 편이라 현지에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p> <p>초등학교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가는 활동들을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라는 염려를 하며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p>	
힘들었던 점	<p>도착하자마자 물갈이를 하는 것인지, 봉사기간 내내 설사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워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준비해갔던 저희 팀은 더욱 지쳤던 것 같습니다.</p>	
좋았던 점	<p>쉬는 시간에 뛰어노는 베트남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놀았던 추억들이 생각나는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활동들을 아이들이 매우 재미있어하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따라줘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p>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p>출발하기 전 베트남 봉사 팀의 친목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는 것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베트남에 가보니 통역이 없으면 아이들과 대화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봉사를 준비할 때에는 봉사 팀이 베트남어를 하루 몇 시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두고, 몇 번의 모임에 걸쳐서 익히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마지막 한마디	<p>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귀한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베트남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저 또한 행복한 기억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그곳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p>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체육
활동 전 기대했던 점	교회에서 여러 사역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황 이였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더 힘들어질까 걱정이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 가기 전에 활동을 많이 참여하지 못 해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깨닫고, 얻는 게 있겠지.'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기대 20% 걱정 80%)	
힘들었던 점	식중독에 걸려 힘들었던 것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좋았던 점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뛰어놀고, 여러 활동으로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순수한 마음을 갖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팀원들이 각자에 매력과 다른 달란트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많이 도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보다는 내 삶에 있어 쉬는 시간과 같은 봉사였습니다. 봉사한 내내 힐링 이였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양인철 목사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리더십으로 인해 '리더'라는 자리에 책임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는 공동체에서 보여 줄 수 있는 리더에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린튼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고 행복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체육
활동 전 기대했던 점	<p>처음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동남아 국가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처음에는 기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선교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베트남에서의 활동들을 준비하면서 그곳에서 보다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배울 것들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또한 베트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고, 4일간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p>	
힘들었던 점	<p>전체 학생리더로 섬기면서 마주했던 수많은 어려움을 일일이 글로 표현하기 어려워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것들과 좋았던 기억들만 남기려고 합니다.</p>	
좋았던 점	<p>지난 번 러시아로 다녀온 친구들은 통역이 없어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에 비해 이번 베트남은 통역을 위해 현지 대학생들이 함께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단순 의사소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지 대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베트남에 대해 친근하고 폭넓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한 것이 어느 무엇보다 좋았습니다.</p>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p>선교를 준비하는 전체모임에 대한 공지가 사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참석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전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아침묵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저녁시간에는 특강보다도 팀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어울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마지막 한마디	<p>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배우게 하신다.</p>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체육
활동 전 기대했던 점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 가서 시야를 넓히고 봉사 활동으로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국적은 다르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힘들었던 점	더운 지역 이다보니 아무래도 오랜 시간 활동을 하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현지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좋았던 점	아이들의 순수함을 볼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며 역사를 앞으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하루에 감당해야할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한 후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경건회, 특강, 장기자랑 등의 활동으로 충분히 쉬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린튼 리더십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내 한계를 알 수 있었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체육
활동 전 기대했던 점	<p>린튼 리더십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적인 예수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주의 향기가 전해지길 바라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활동 전 처음으로 떠나는 동남아시아라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점점 학교 활동을 준비하면서 베트남 해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나에게 품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큰 세상. 섬김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 가는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p>	
힘들었던 점	<p>추운 한국 날씨에 비해 베트남은 덥고 습하였습니다. 처음에 적응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빈롱에서 현지 음식을 접하며 향신료로 인해 음식이 힘들었습니다.</p>	
좋았던 점	<p>우선 양인철 목사님의 아낌없는 헌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생겼을 때 주님을 찾아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기도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봉사를 통해 아이들의 현 상황 등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에 모습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린튼 학생들이 참여하여 활동들이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짧았지만 호치민에서 보냈던 시간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빈롱과는 다른 모습의 베트남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보았던 풍경은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오래 남을 듯합니다.</p>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p>많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플 홍보가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여 더 오랜 기간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가기 전 봉사를 가기 위한 기도회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와서 린튼 리더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마지막 한마디	<p>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남대 학생 모두가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p>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체육
활동 전 기대했던 점	베트남 린튼 리더십 해외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넓은 시야, 세계관을 이해하며 다문화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계획하심의 목적을 알고 싶었습니다.	
힘들었던 점	8일차 때부터 심한 감기몸살과 두통으로 인해 고생한 경험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좋았던 점	푸득C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준비한 수업을 가르치고, 함께 추억을 만든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학생들이 아프거나 사고 시 근처에 효율적인 병원 및 응급실까지 알아보고 가서 빠르게 사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면 좋겠고, 환자 발생 시 일정을 어떻게 변경할건지 미리 차선책을 대책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함께 참여한 27명의 린튼 리더십 학생들 너무 수고 많았고, 함께 해주신 교수님 두 분과 양인철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통역으로 섬겨주신 호치민 대학교 학생 분들과 저희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교목실, 한남대학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만들기 1
활동 전 기대했던 점	베트남은 현재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걱정보다는 현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린튼 리더십 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점	안타깝게도 우리 단원들 모두가 식중독에 걸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단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았던 점	식중독에 걸리는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아주면서 유대감이 생겼고 더욱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과정마다 푸득 씨 초등학교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고 우리를 너무 좋아해줘서 감사했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베트남 봉사활동을 통해 단원들이 모두 협업하며 유대감이 생겼지만 봉사활동에 떠나기 이전에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처음에 단원들이 하나 둘씩 아프기 시작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음에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에 인간인 저 자신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단원들의 협력이 인생에 있어 큰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푸득 씨 초등학교 아이들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라고 느꼈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그 아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뻐고, 아이들도 우리를 이유 없이 좋아해주었는데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가슴이 뛰고 그동안 죽어있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만들기 1
활동 전 기대했던 점	활동 전에는 봉사 활동보다는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겁게 놀 생각에 가득했습니다.	
힘들었던 점	봉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대가 없이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말도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너무 고되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다가가기 힘들고 괴롭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김밥을 파셨고 제 초등학교 시절은 김밥을 들고 여기저기 가져다주고 배달하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김밥 집 아들로 통해서 많은 놀림과 괴롭힘도 당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좋았던 점	처음 면접을 볼 때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무엇인 것 같니? 라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섬김과 리더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싶습니다.” 린튼 리더십 활동을 하면서 나는 회계를 맡아서 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바울이와 함께 점심모임을 준비하고 다양한 것들을 상의하는데 저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손해 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그런 활동들이 보람차고 즐겁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섬긴다’는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봉사하는 중에 베트남의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특히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 친구들은 작은 것에도 웃고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고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철 교수님의 특강 때 자원봉사자들은 남을 돕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기에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봉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로 인하여 큰 위로와 제 어린 시절을 극복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같이 린튼 리더십 활동을 진행하던 친구들도 모두 다들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등도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섬김이 무엇인지 또 리더십이 무엇인지 말로는 쉽게 풀어 낼 수는 없지만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임원이나 팀장을 제외한 일반 팀원들도 더 자주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저희를 인솔해주신 양인철 목사님, 한철 교수님, 최정진 교수님 그리고 고생 많았던 우리 임원들 바울이 지희 수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린튼 리더십에 용기를 내서 참가했던 제 자신에게 스스로를 칭찬하는 한마디를 꼭 건네고 싶습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만들기 1
활동 전 기대했던 점	<p>사전에 어떤 학년을 맡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학년에 어울리는 활동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전에 물품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서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p>	
힘들었던 점	<p>베트남 음식과 주거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지 않아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몸에 기운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숙소 화장실로도마뱀이 들어오니까 더 예민해졌던 것 같습니다.</p>	
좋았던 점	<p>저희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부터 아이들이 학교 앞에 다 나와서 기다려주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닌 저 자체를 좋아해 주는 아이들을 만나서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p> <p>자유 시간을 가지면서 무작정 노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좀 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p>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p>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밤 팀장들끼리 피드백을 주고받은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끼리만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하루를 정리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좋았던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p>	
마지막 한마디	<p>해외 봉사를 처음 가봐서 낯설고 힘든 점도 분명 있었지만 그만큼 내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 목사님, 선교사님, 교수님들,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외롭지 않고 린튼 리더십에 대한 애정이 클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p>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만들기 1
활동 전 기대했던 점	<p>봉사활동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것이었지만 사실 저에겐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봉사를 준비하고, 조원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만들어보고, 연습하고, 우리의 활동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뤄질 것만 같았고, 나도 전에 다녀온 선배들과 친구들처럼 천사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p>	
좋았던 점	<p>베트남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은 반짝거렸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서로 말도 통하지 않고 그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해주었습니다. 열정에 비해 서툴지만 했던 가르침조차 열심히 따라하려 노력해주던 그 예쁜 손놀림도 빠짐없이 떠오릅니다. 학교로 찾아갈 때마다 달려 나와서 마중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던 그 아이들의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볼 때마다 너무나 소중해서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수록 느끼던 것은 내가 여기 아이들 앞에 서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런 대가없는 큰 사랑을 받아볼 수 있을 까 하는 벽차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각각의 색으로 빛나던 아이들의 그 미소는 한국의 돌아와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눈앞에 아른아른 거립니다.</p>	
힘들었던 점	<p>준비에 앞서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상비약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해외까지 나가서 아프며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봉사 5일차에 식중독이 걸려 음식조차 입에 대지 못했고, 결국 열이 오르면서 응급실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과의 마지막 날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타지에서서의 아픔이 서러웠고, 무서웠으며, 봉사의 기쁨은 사라져가고 그저 '집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녁마다 모인 기도회에서 하나님께 기도 중 문득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항상 나와 함께하시는데 내가 이 아픈 것 하나로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기도로 이겨내고자 했고, 학교생활로 내가 멀리했던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해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으로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아팠던 것들이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계기로 다가오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p>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p>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편찮았지만 인민위원회와 함께하던 점심식사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산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둘째 치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큰 냄비에 넣어놓았다가 퍼 주는 배급 형식이었는데 기본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서 벌레와 같은 것들이 냄비 안에서 날아오르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골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건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음식만큼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p>	
마지막 한마디	<p>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8박10일 이었지만 다시 출발 전으로 돌아가서 다녀오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가겠노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것이 무색할 만큼 행복했고 벽찬 날들이었고, 감히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경험과 깨달음, 추억과 사랑을 받아들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p> <p>소중한 인연들과의 만남들이 종종 떠오릅니다. 그 순수하게 빛나던 아이들이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에게 웃음과 사랑을 전했듯이,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또 한 번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마지막 말을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린튼♥</p>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만들기 1
활동 전 기대했던 점	<p>저는 대학진학 전부터 해외봉사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린튼 리더십 스쿨이라는 좋은 기회를 얻어 베트남으로 해외봉사를 가는 것이 매우 기뻐합니다. 실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는 베트남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란 사실 자체가 설렘이었습니다.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베트남이란 나라의 풍경을 보며 이동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대되었습니다.</p>	
힘들었던 점	<p>모든 것이 좋았지만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을 뽑자면 음식으로 인한 장염증세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먹었던 음식이 저를 포함한 린튼 리더십 스쿨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병원에 가게 되고, 배 아픔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p>	
좋았던 점	<p>베트남 해외봉사를 와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푸득 초등학교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처음 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럼없이 다가와주는 모습, 쉬는 시간에 순박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p> <p>함께 베트남으로 출발한 구성원들도 하나같이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비단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시간들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고 베트남 해외봉사의 모든 시간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p>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p>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 봉사활동 때에 먹었던 대부분의 음식들이 맛있고 안전했지만, 인민위원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여러 학생들이 고생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기에 다음 봉사활동을 기획할 때에는 이 점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p>	
마지막 한마디	<p>아직도 푸득씨 초등학교에 도착해서 활동하며 느낀 아이들의 순수함과 때 묻지 않은 사랑이 생생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아이들로 인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다가와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4일 동안의 만남을 통해 그 호기심이 더 이상 호기심으로 남아 있지 않고 사랑으로 번져갔기에 그들과의 헤어짐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구절처럼 아이들이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따뜻했던 날씨처럼 봉사활동을 하며 보냈던 시간들, 조원들과 수업을 준비하고 여행하며 보냈던 시간들 린튼 리더십에 참가한 구성원들과 교류하며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 같습니다.</p>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만들기 2
활동 전 기대했던 점	아이들과 만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것,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하는 것, 아이들과 정이 드는 것, 활동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실 것	
힘들었던 점	말이 전혀 안 통하니까 통역언니, 오빠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이 생겨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1학년~5학년까지 있는데 3개 학년 밖에 수업을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좋았던 점	1) 베트남 가기 전부터 수업을 열심히 준비한 것. 2) 하루하루를 말씀묵상으로 시작한 것. 3)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 해준 것. 4) 밤에 기도회 한 것. 5) 조 안에서 단합이 굉장히 잘된 점. 6) 아이들에게 찬양을 불러준 것. 7) 다른 조와도 섞여서 부스활동을 진행한 것. 8) 유연하게 일정을 바꾼 것. 9)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함께하는 교수님을 잘 선정했으면 좋겠고 모임을 더 많이 해서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또한 공지를 미리미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모두 건강하게 한국에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만들기 2
활동 전 기대했던 점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는 과연 내가 언어가 다른 어린 친구들에게 준비한 교육을 잘 전달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점차 좋아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옛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우리 팀을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점은 공항에서 학교까지 너무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좋았던 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여운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 할 수 있었던 점.</li> <li>2. 린튼 리더십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점.</li> <li>3. 목사님을 통해서 참 된 리더십에 대해서 깨닫게 된 점.</li> <li>4.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부분을 알게된 점.</li> <li>5.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던 점.</li> <li>6. 모든 일정에 기쁨이 넘쳤던 점.</li> </ol>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음식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또 저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만들기 2
활동 전 기대했던 점	1.푸득씨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던 볼펜 만들기, 필통에 그림그리기 활동들을 커다란 변수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기대 2.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한 활동들을 재미있어 할까 라는 기대 3.부스활동 중에서 물풍선, 물총놀이 팀이었는데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서 놀 수 있다는 기대 4.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 5.좋은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 6.린튼 리더십 활동을 같이 하게 된 학생들에 대한 기대	
힘들었던 점	학교 봉사 끝나고 교수님 강의를 듣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봉사 끝난 후라 무척 피곤 하고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전에 장기자랑 한다는 공지가 있어서 봉사 끝나 고 피곤한데 늦게 까지 장기자랑 준비를 했던 점이 힘들었습니다. 장기자랑을 준비했 지만 강의시간이 길어져서 장기자랑을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좋았던 점	1.버스타고 학교 앞 골목길로 들어가면 버스소리를 듣고 정문에서 우리를 마중 와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2.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면 손을 잡고 선생님 휴게실로 데려다 주었던 것 3.말이 통하지 않아도 표정과 몸짓만으로 아이들이 우리를 반겨준다는 것을 알았을 때. 4.수업 시작하기 전 우리들이 자기 소개할 때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는 아이들 모습. 5.준비한 활동들에 집중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들. 6.각 팀마다 통역친구들이 배치되었다는 점. 7.에그마요 팀으로 아리언니, 형지오빠가 와주었다는 점. 8.수업 전 준비시간에 통역친구들과 함께 조모임 시간을 가져 함께 수업준비를 했던 점. 9.묵상집이 있어 아침마다 묵상하고 조원들과 생각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루를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다짐했었던 시간 10.이번 봉사를 통해 제 꿈이 정해진 것! 11.자유시간이 많았던 점. 12.조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점. 13.학생들끼리 모여서 밤에 기도회를 진행했던 점. 14.선교사님께서 항상 맛있는 음식점에 데려가 주신 점.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1.봉사 가기 전에 교수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조별 단체사진은 많은데 전체 단체사진을 거의 안 찍었는데 단체사진을 많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3.선교사님의 선교 얘기를 더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마디	양인철 목사님도 학생들과 같이 아프셨는데 저희 챙겨주시느라 무척이나 고생하셨던 점, 환자들 속출할 때마다 마음고생 하셨을 목사님께 감사하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 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안부 묻는 것 밖에 없어 무척 죄송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러시아도 다녀왔는데 베트남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심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만들기 2
활동 전 기대했던 점	해외 선교를 통한 국내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과 개인 신앙의 성숙	
힘들었던 점	교수님	
좋았던 점	함께 준비한 팀원들과 같이 고생한 전체 참가자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주신 목사님. 이 사람들과 이런 시간이 다시 있을까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해외 선교 팀은 학생들이 제일 주도적으로 준비하지만 인솔자들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같이 가는 교수님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거나 해외 선교를 가는 학생들이 선택한 교수님들 중에 가는 방향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냉정하게 개인적으로 느낀 느낌은 한 팀이라는, 같이 준비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어려웠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하였고, 그래서 더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누구든 이런 소중한 추억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동역자들과의 만나게 하신 만남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만들기 2
활동 전 기대했던 점	아이들과의 깊은 교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역사탐방 등)이 기대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점	너무 많은 아이들을 통제해야 했던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좋았던 점	아침마다 묵상할 수 있게 책자를 만들어 주신 부분과 아이들이랑 노는 시간이 많았던 부분이 좋았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통역해주는 친구들과 있을 시간이 짧았던 부분, 인원수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재료를 부족하게 챙겨가서 애들이 하지 못 한 수업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한국어교육
활동 전 기대했던 점	하나님이 이번 린튼 활동을 통하여서도 주실 은혜를 가장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린튼 활동을 할 때에 정말 큰 은혜를 주셨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린튼 활동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들었던 점	그때 당시에는 다른 학우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친구들을 놓고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화위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린튼 활동을 통하여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좋았던 점	아픈 학우들을 위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하였던 점과 아픈 학우들을 위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간호해 주고 서로 도와주었던 점입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이번 활동 중에 음식으로 인하여 아픈 것들만을 빼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음식으로 인한 아픈 것들에 대한 개선 사항은 다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저번 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식사 보다 더 숙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방 크기에 따른 인원 분배도 적절했고, 깨끗한 숙박 시설 (간혹 어떤 방은 도마뱀과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하지만 필자는 없었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자유롭게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조식 등등 저번 린튼 활동보다 숙박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숙박시설은 좋았고, 다른 부분도 딱히 좋지 않았던 점은 찾지 못했으므로 개선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다음에도 린튼 활동이 있으면 너무나도 가고 싶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린튼 활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린튼 리더십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향한 마음과 열정이 변하지 않고 후세까지 계속 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한국어교육
활동 전 기대했던 점	<p>생전 처음으로 교육 봉사라는 것을 한다는 것, 그것도 베트남이라는 타국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척 기대가 됐고 너무 소중한 신앙심이 있는 린튼 리더십 식구들과 함께 8박 10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린튼 리더십을 신청할 때 학교를 위해, 교수님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는 린튼 리더십이 되어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나의 기도제목이었습니다.</p>	
힘들었던 점	<p>1. 아무래도 무더위라서 땀도 많이 흘리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교수님과 목사님의 배려로 많이 쉬긴 했지만 프로그램 상으로는 저녁 식사 이후에는 계획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몸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잘하는 것 또한 리더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p> <p>2. 빈롱시 인민위원회에서 매번 점심을 대접해주셔서 맛있게 먹었지만 사실 더운 여름날 야외에서 먹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p>	
좋았던 점	<p>1. 가장 좋았던 점은 린튼 리더십 식구들과 하나 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린튼 리더십을 신청하기 전 학교를 위해, 교수님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 힘들어도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었고, 서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린튼 리더십 식구들이 될 수 있어 감사했고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이렇게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회 시간)</p> <p>2.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목사님과 교수님들, 학생들의 섬김과 배려가 없었다면 이번 베트남 해외봉사는 불가능 했을지도 모릅니다. 차세대 리더로서 서로의 섬김과 배려를 느낄 수 있는 해외 봉사여서 감사했습니다. (섬김과 배려)</p> <p>3. 천사 같았던 푸득씨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제 마음까지 순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기를 바랐고 훗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길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p>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p>힘들었던 1번에 대해 개선할 점으로는 건강관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점 2번에 대해서는 물론 대접해주는 점심은 감사하지만 여름이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해산물을 먹는 것 또한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마지막 한마디	<p>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린튼 리더십 활동을 마치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나의 한계와 어려움에 많이 부딪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일만 허락하셨고 그렇지 못할 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p> <p>예전에 리더십 특강에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과 교수님을 통해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린튼 리더십이 ‘내가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형용할 수 없지만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p>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한국어교육
활동 전 기대했던 점	<p>처음 가보는 나라인 베트남에 가는 것 자체가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베트남 통역친구들이 궁금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베트남 아이들과 함께 놀고,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를 하러 실제로 현지 초등학교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학교가 우리나라 학교와 어떤 점이 다를지 궁금했습니다.(생김새나 시스템 등!)</p>	
힘들었던 점	<p>초등학교 봉사 때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서 수업 내내 정말 더웠는데,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현지 아이들도 너무 지쳐가는 게 눈에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봉사동안 베트남에서 음식을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맛있게 잘 먹은 음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아픈 바람에 프로그램 일부를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정말 너무 아쉬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p>	
좋았던 점	<p>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다들 좋아서 이번 해외 봉사가 진짜 재미있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것이 기대가 되기는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다르게 아이들이 너무 잘 참여해줘서 고마웠고, 특히 숫자송 울동을 배운 후에 몇몇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대표로 춤을 췄을 때는 진짜 귀엽고 감동적이었습니다.</p>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p>교육봉사가 있는 날 오후시간만큼은 강의나 발표시간 보다는 조별준비시간을 일찍 가지고 휴식이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식사 후 강의나 발표시간을 가지고 또 이후에 조별끼리도 모이고 이러다보니 전반적인 재정비시간이나 취침시간이 늦어져서 다음날이 힘들었습니다.) 이외는 기존 프로그램에 만족한다.</p>	
마지막 한마디	<p>린튼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린튼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p>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한국어교육
활동 전 기대했던 점	이번 린튼 리더십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기 때문에 예배나 모임가운데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힘들었던 점	리더십이 아픈 사람을 챙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저의 팀원 중 아픈 지희 언니와 수진을 잘 챙기지 못한 점이 힘들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았던 점	우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이번 2019년도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서로 소통을 더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가기 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서도 함께 방에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저희를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신 목사님, 교수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친구들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었고, 리더십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개인별 느낀 점

	이름: 000	소속팀: 한국어교육
활동 전 기대했던 점	<p>작년에도 린튼 리더십 스쿨로 태국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어국문창작학과인 제가 가장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을 맡아 이 팀이 꾸려진 이후 더더욱 기대가 됐고, 저희가 알려주는 한국어를 듣는 친구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고 즐거워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8박 10일 동안 함께 할 친구들과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그 기대는 설렘이 되었습니다.</p>	
힘들었던 점	<p>저희 팀이 설렘을 가지고 마주한 친구들을 정말로 생각보다 어리고 조그만,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첫 날부터 셋째 날까지 준비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힘든 점은 별로 없었다. 다만, 수업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한국어 교육팀이 자음모음 수업과 숫자 교육을 준비해갔는데, 숫자 교육 비중을 줄이고 어려운 자음모음 수업보다 뜻이 좋은, 듣기 좋은 한국말을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p> <p>수업을 진행하고 며칠 안 돼서 안타깝게도 팀 내에서 하나 둘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파하는 걸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비롯해서 다른 몇몇 친구들과 목사님, 나까지 하루 이틀 몸이 안 좋아서, 우리 팀 내 분위기가 침체 되었습니다.</p>	
좋았던 점	<p>하지만 우리 팀은 마지막까지 침체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 명이 아팠지만, 자신보다 더 아픈 친구를 위해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약도 챙겨주는 배려를 보였습니다.</p> <p>아이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아쉬운 점이 생길 때마다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되니 매일매일 좀 더 새롭고 재밌는 수업이 되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 팀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p>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	<p>교육봉사 면에선 각 팀별로 만반의 준비를 해가서 모두가 즐거운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해외 어디를 가든지 현지에서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현지에 대한 기본 상식을 공부하고 비상약을 챙겨가는 등 항상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마지막 한마디	<p>결코 짧지 않은 8박 10일 동안 한국어 교육팀을 비롯해 모든 팀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특히 낮이나 밤이나 학생들 걱정하시고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양인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린튼 리더십 스쿨이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 7.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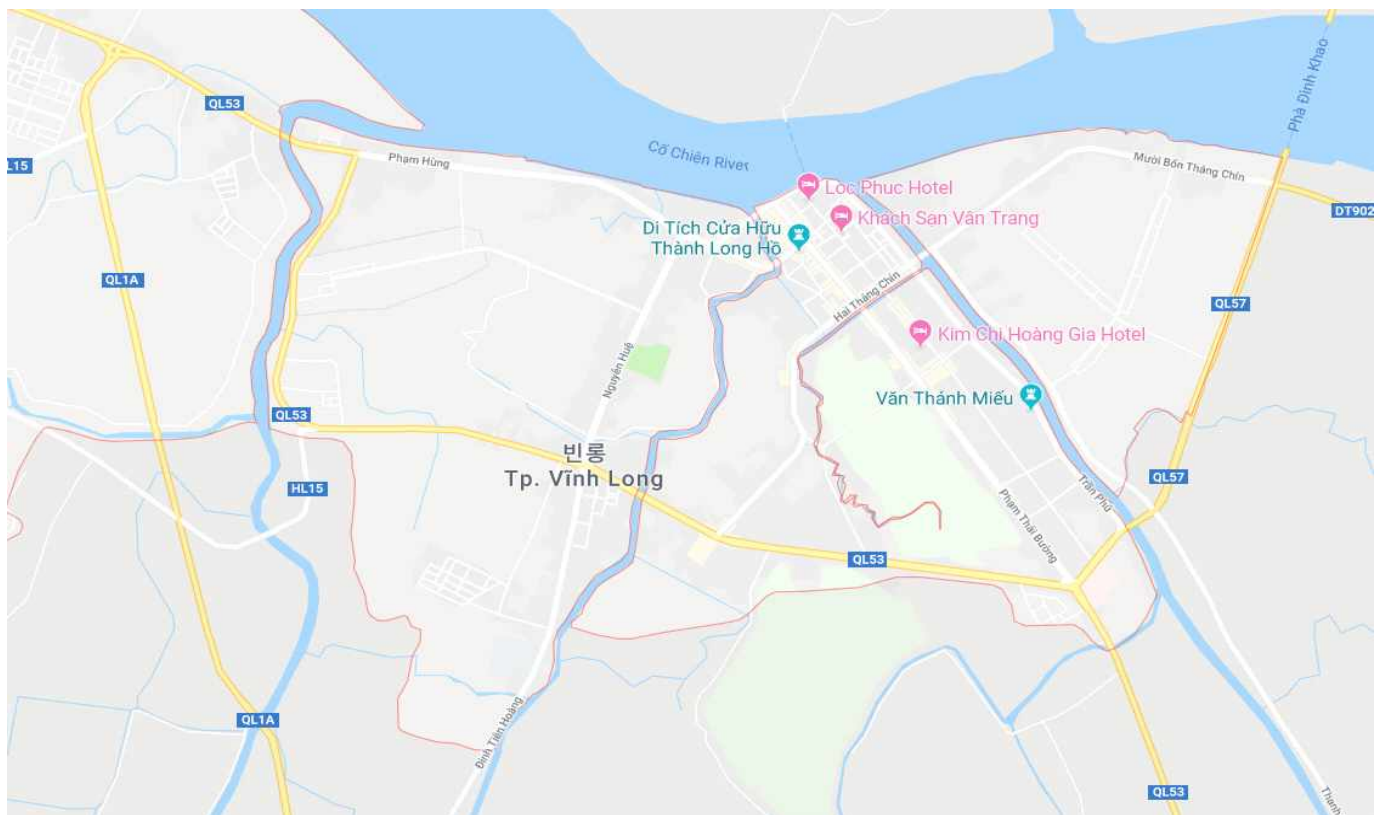
# 8.부록

# 베트남 지도

[그림 1 호치민 지도]



[그림 2 베트남 빈롱 지도]



[출처: Google]

# 베트남어 학습

[표1 베트남어 알파벳]

## 베트남어 알파벳

알파벳	명칭	발음	알파벳	명칭	발음
A	아 [A]	ㅏ (길게)	O	오 [O]	ㅓ+ㅓ (동글게)
Ă	아 [Á]	ㅏ (짧게)	Ô	오 [Ô]	ㅓ
Â	어 [Ó]	ㅓ	Ơ	어 [Ơ]	ㅓ
B	베 [Bê]	ㅂ	P	빠 [Pe]	ㅃ
C	씨 [Xe]	ㅈ	Q	꾸이 [Qui]	ㅉ
D	북: 제 [Dê] 남: 예 [Dê]	북: ㅈ 남: ㅇ	R	에러 [E rò]	북: ㅈ 남: ㄹ
Đ	테 [Đê]	ㅌ	S	엣시 [Ét si]	ㅈ
E	애 [E]	ㅙ	T	떼 [Tê]	ㅊ
Ê	에 [Ê]	ㅞ	U	우 [U]	ㅜ
G	궤 [Giê]	ㄱ	Ư	으 [Ư]	ㅡ
H	학 [Hát]	ㅎ	V	베 [Vê]	ㅅ [V]
I	이 응안 [I ngán]	ㅣ (길게)	X	익씨 [Ích xi]	ㅆ
K	까 [Ka]	ㅋ	Y	이 자이 [I dài]	ㅣ (짧게)
L	엘러 [E lờ]	ㄹ	※ Ă, Â, Ơ 등 다음 부호는 성조가 아니다. ※ c, k, p, q, t는 영어와 다르게 된소리가 난다. (c, k → ㅈ, p → ㅃ, q → ㅉ, t → ㅊ)		
M	엠머 [Em mò]	ㅁ			
N	엔너 [En nờ]	ㄴ			

[출처: 시사북스]



[표2 베트남어 숫자]

숫자	글자	독음
0	số không	콩 또는 콤
1	Một	못
2	Hai	하이
3	ba	바
4	bốn	본
5	Năm	남
6	sáu	싸우
7	bảy	바이
8	tám	탐
9	chín	찐
10	mười	므어이

[표3 베트남 기본 회화]

뜻	글자	독음
안녕하세요.	xin chào	썸 짜이
안녕히 계세요.	tạm biệt	담 비엣
감사합니다.	cảm ơn	깜 온
미안합니다.	xin lỗi	신 로이
맛있습니다.	ngon quá	응언 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rất vui được gặp bạn	럿 부이 뜨억 갑 반
이름이 무엇입니까?	bạn tên là gì?	반 덴 라 지
저는 000입니다.	tôi tên là ...	또이 덴 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cái này là cái gì ?	가이 나이 라 가이 지
이거 얼마입니까?	cái này bao nhiêu	가이 나이 바어 니워
너무 비싸요.	đắt quá	맛 과
집중해주세요.	tập trung	땃중

\*주의할 점

1. Con: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께 ‘con’을 사용해야 한다.
2. Em: 언니, 오빠, 선배나 어린 사람에게 ‘em’을 사용해야 한다.
3. 호칭: 할아버지 ông / 할머니 bà / 오빠 anh / 언니 chị,  
아주머니 cô / 아저씨 chú / 어린 사람 em